

# ‘아이에게 선물하는 하루’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23일 개막

### 출동! 곡성귀염뽀짝 어벤져스 퍼레이드로 막 올라... ‘EBS 이벤저스’, ‘캐치! 티니핑’ 등 다양한 공연 준비

곡성군은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한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축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꾸며, 이름 그대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막퍼레이드와 공연은 23일 오후 5시부터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 펼쳐진다. 지역 어린이집의 아이들 200여 명이 증기기관차와 어울리는 추억의 패션으로 “출동! 곡성 귀염뽀짝 어벤져스” 퍼레이드를 펼치며, 퍼레이드가 끝난 후 “곡성도깨비헌터스” 개막 축하 뮤지컬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연들을 매일 준비되어 있다. ▲ 23일 인기 애니메이션 OST 커버 콘서트 ▲ 24일 ‘EBS 이벤저스’ ▲ 25일에는 ‘캐치! 티니핑’과 ‘아동극 브레멘 음악대’ ▲ 26일 ‘헬로카봇’과 ‘피터래빗’이 공연된다. 아울러, 매일 중앙무대에서는 매직 발룬 콘서트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24일에는 어린이 클럽 DJ LUNA, 25일에는 소유, 이수영, 고유진, 율라라세션, 클레오 등 엄마 아빠도 즐길 수 있는 ‘리즈 2000 콘서트’가 열린다. 26일에는 24일에 이어 DJ LUNA와 인기 댄스 챌린지 등 어린이 랜덤 플레이 댄스 ‘어린이날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기차마을 곳곳에서 트랜스폼머, 공룡, 버블 등 다양한 퍼포먼스존과 장미정원에서 어린이 미션 탐험대, 지치뿌뿌 광장에서 다양한 포토존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축제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편, 곡성 지역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3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국제실용예술제와, 24일 금요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어린이 가족연극 천하무쌍’ 공연이 펼쳐진다.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차마을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 추석 황금연휴 진도개 Dog 스포츠 등 성황

진도군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약 1만 명이 진도개테마파크를 방문한 추석 개 공연,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어질리티) 등 Dog 스포츠를 관람하고, 진도개 강아지 체험장과 미니 동물농장(학습체험장)을 다녀갔다고 밝혔다.

군은 진도개 관련 문화와 진도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진도개테마파크 일원에서 진도개 Dog 스포츠와 진도개 학습장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개테마파크는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Dog 스포츠를 진행하고, 주말(토, 일)과 공휴일 오전 11시에는 진도개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교감 공연, 진도개의 영특하고

민첩함을 볼 수 있는 달리기, 견주와 진도개가 협동해서 진행되는 장애물 달리기(어질리티), 강아지를 직접 만지고 배우는 진도개 학습체험장 등을 운영한다.

또한, 진도개테마파크 안에는 미니 동물농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진도개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공간을 제공해 진도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지역을 찾는 애견인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기억되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영광군수, 산물벼 매입 현장 찾아 농업인 격려

### 공공비축미 7,882톤, 영광RPC 29,276톤 등 37,158톤 매입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추곡 수매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2025년산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는 영광RPC·백수RPC·서영광DSC 3개소를 방문하여 매입 관계자 및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산 벼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7,882톤과 영광RPC 자체매입 29,276톤이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종, 영광RPC 자체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진상2호 3종이고, 산물벼는 10월 말까지 영광RPC에서 매입 중이며,

건조벼는 11월부터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조를 통해 매입하게 된다.

특히, 공공비축미 매입의 경우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20% 이상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친환경 벼 잔류농약 검사 결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중간정산금(40천 원/포대)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쌀값을 반영하여 12월 중 가격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영



광RPC 자체매입 가격은 별도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작년 매입 벼 1등급 이상의 비율이 95%로 좋은 등급을 받았던 만큼 올해도 농가가 최상의

등급을 받기 바라며, 특히 피해벼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전량 매입하여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영광 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 총력

### 해조류 이해관 등 7개 전시관 운영, 수출 상담회 등 개최 예정

완도군이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자인 완도군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7 박람회는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해조류 관련 해외 기업·바이어 유치, 3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며 해조류산업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2028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해조류, 생명의 기원에서 인류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해조류 이해관 등 7개 전시관 운영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행사를 넘어 ▲블루카본으로서의 해조류 미래 비전 제시 ▲기후변

화 대응 식품 산업 모델 개발 ▲글로벌 교류 확대를 통한 산업형 박람회 정착 ▲수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목표를 세웠다.

군은 지난 5월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전라남도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국제 행사 개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심의 통과, 국제 기구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 강화,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완도군이 해조류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3억원 돌파

### 답례품 다양화하고 계절·명절 이벤트 운영으로 참여 유도

장흥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

장흥군은 올해 초부터 전국 향우회와 각종 축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계절·명절 이벤트 운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25년 한 해 모금액이 3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을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기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장학사업, 주민 복리 증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과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인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장흥군 제공

## 나주시, ‘2025 국제농업박람회’ 나주관광 투어버스 운영

### 영산강정원서 열리는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과 시너지효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나주의 주요 관광지인 ‘2025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이 열리는 영산강정원을 순환하는 ‘나주관광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투어버스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1일 1000원)으로 편안하게 나주의 대표 관광지와 ‘2025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코스는 나주역(승월동)을 출발해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산포면)-나주읍성(금남동)-‘2025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이 열리는 영산강정원(영산동)-황포돛배

선착장(이창동)을 경유한 뒤, 다시 나주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운행 기간은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매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해 각 경유지에 승차 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차량 내에는 나주의 주요 관광지와 맛집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비치한다.

윤병태 시장은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투어버스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나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나주의 가을 정취를 느낄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